

'상송 여제' 에디트 피아프 비극적 삶 담아낸 '사랑의 찬가'



<15> '라 비 앙 로즈'

프랑스 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작은 참새'... 처절했던 과거 노래로 견뎌 미국 아카데미·골든 글로브 석권... 웨이브·시리즈온 등 OTT서 상영 중

오래된 녹음이 영화화 듯한, 레코드 바늘이 엘 피판을 긁는 것 같은 감각. '상송 여제'로 칭송받는 에디트 피아프의 '라 비 앙 로즈'를 듣고 있으면 악곡 한편에서 비장미가 느껴진다. 감미로운 세레나데에서 부정적 악상이라니, 의아할 수 있지만 노래 저변에는 분명 감춰진 우울함이 있다. 기쁨과 슬픔에 발을 번씩 걸친 야누스적 감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올리비아 다한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무지카 시네마(음악 영화) '라 비 앙 로즈'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다. 최근 고화질로 리마스터 된 작품은 프랑스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마리옹 꼬띠아르 분)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다. 개봉 당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 글로브, 런던·L.A 비평가 협회상을 석권할 만큼 이목을 끌었으며 현재 웨이브, 시리즈온 등 OTT 플랫폼에서 상영 중. 영화는 피아프의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조경화한다. 파리지앵 특유의 천진, 명랑과는 거리가 먼 유곽의 데카당티즘(퇴폐)으로 가득 차 있다. 유년 시절 피아프의 어머니는 카바레 가수였고 아버지는 서커스 곡예사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떠나 매음굴을 운영하던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그때도 피아프, 아니 '에디트 지오반나 가송(피아프의 본명)'은 세간의 별칭과 같이 '작은 참새(Piaf-작은 참새)'처럼 비상하려 애쓴다. 신장 147cm에 불과한 단신에 곡절을 거치고, 유럽 음단에서 데뷔 무대를 치른 그녀가 자못 놀란다. 영화는 효과적인 카메라 워킹을 활용한다. 작중 1959년 뉴욕에서 빌리 홀리데이 음반에 대해 언급하는 '성공한 피아프'와, 1940년 멧든 눈을 감사는 '유년기 피아프'는 교차 편집됐다. 두 이미지를 병치하는 오버랩이 아니라 교대로 상을 보여준 데에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 이미지를 단순히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절망과 환희를 대조시켜 비극성을 깊게 투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한 감독은 전반부를 비극, 후반부를 행복으로 장식하는 선형적 플롯을 지양했다. 피아프의 화려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되 네 번의 교통사고, 연인의 죽음, 유치장 신세, 결혼과 이혼 등 경험을 끌어와 하나씩 큐레이션 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전기적 작품임에도 과거 기억의 단편 중 클라이막스를 하나씩 '열람'하는 듯한 전개 방식은 몰입감을 더한다. 작중 피아프는 총 세 번의 행복을 마주한다. 하나는 에디트의 목소리에 반한 클럽 사장 '루이스 레플라'가 활동명을 선사하고 클럽 데뷔무대를 마련해



'라 비 앙 로즈'는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다룬 일대기적 영화다. 극중 에디트 피아프가 노래하는 모습(왼쪽)과 무도회에서 축하를 받는 장면.



준 일, 다른 하나는 프랑스 최고 시인 '레이몽아소'에게 발탁돼 그의 시를 노래로 불렀던 일이다. 아울러 미들급 권투 챔피언 막셀 세르당에게 사랑에 빠졌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그녀의 행복들은 모두 '위기'와 맞물려 있다. 레플라를 돌연 살해당해 클럽 공연은 무산됐고, 레이몽아소와는 이별했으며 세르당은 대서양 너머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해 숨진다. 허나 피아프는 역설적이게도 세르당 사망 이후 '사랑의 찬가'를 작곡했고, 찬가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를 스타덤에 올렸다. 비극을 자양분 삼아 성장했던 프리다 칼로, 베토벤, 고흐 등 예술가들의 면면이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이쯤에서 피아프의 삶을 '트레몰로'에 유비하고 싶다. 떨림 음을 되풀이하는 주법 트레몰로는 행복과

고통을 진자운동 하던 그녀의 삶과 일견 닮아있다. 공교롭게도 그녀가 1960년 올랭피아 극장에서 부른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에는 이런 노랫말이 등장한다. "사랑도 그 '트레몰로'도 모조리 청산해 버리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는 전기 영화에서 관객들은 어떤 씬에서 고양감을 느낄 수 있을까. 아마도 피아프의 비극적 페이스스가 환희의 순간으로 변모하는, 그녀마저도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일 지도 모른다. 피아프는 자신의 운명 변화를 극적으로 마주한다. 꿈에 그리던 극장 공연을 위해 군중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는다. 이윽고 그녀의 삶에 조그만 숨구멍이 뚫리더니 희비극의 양면 태가 공존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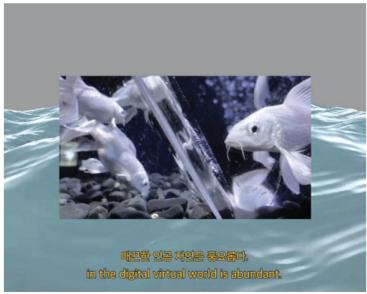
한다. 마사 누스바움은 저서 '혐오와 수치심'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핵심적 감정이 '애증 병존'이라 언급했다. 자기 연민과 나르시시즘이 결합된 감각은 인간을 슬프고도, 찬란하게 만든다. 영화를 그리고 '라 비 앙 로즈'에 귀 기울인다. 뜻을 불어들이 여전히 아름답다. 곡목 'La vie en rose'는 '장미빛 유리를 통해 본 인생'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상송 여제 음악적 유산을 남긴, 이 작디작은 카바레 싱어의 삶이 잿빛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의 삶을 '장미빛 인생'이라 칭해 보고 싶다. 절망을 희망으로 둔화하는 순간, 우리는 피아프처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환경위기·생태재앙 '증언으로서의 자연' 전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인간·자연 공동체 파괴 해석

흔히 증인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만이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연도 증인이다. 사람보다 정확하고 명징하게 증인의 역할을 한다.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노출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증인이다, 증언을 수행하는 현자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증언으로서의 자연'전은 환경위기, 생태재앙 등의 양상을 조경화한다. 자연이 내재하고 있는 상흔의 역사를 반영하고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전시는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플랫폼 '드리프링 커리큘럼'과 캐나다 연구 창작집단 '카운터 메모리 액티비즘'이 협업을 했으며 기획은 멜라니 윌민크와 조주현이 맡았다. 권은비, 박한나, 솔로몬 나글러, 송지형, 안젤라 헤더슨, 양숙현, 정운진, 정혜정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환경 트라우마에 대한 양상을 주목한다. 한국과 캐나다의 생태적 재난 등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대항적 기억' 과정을 탐구한다. 특히 광주 상흔의 역사, 캐나다 식민지화의 영향 등을 토대로 글로벌 식민주의가 어떻게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생태적 재앙으로 이어졌는지 해석한다. 아울러 예술가와 연구자들은 과거의 흔적과 오늘의 생태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직관적으로 기록한다. "매끈한 인공 자연은 풍요롭다"는 문구가 적힌 박한나 작가의 '유령의 풍경'은 환경위기와 생태 재앙을 은유한다. 인공자연은 결코 풍요롭지 않고, 많은 생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풍요로울 수 없다. 풀 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다가온다. 양숙현의 'seongsan-wimi-daepo'는 바다 속



박한나 작 '유령의 풍경'

특정 풍경을 담아낸 작품으로 보인다. 네모 속 장면은 더 이상 푸르지 않고 변색돼 버린 자연의 모습을 암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조주현 기획자는 "이 전시가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생태적 식민성에 대해 성찰하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으로서 문화, 풍경, 역사 사이의 사변적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학산책' 대상에 김형미 씨 '조선을 세계에 알린...'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호남진흥원)이 주최한 제4회 호남학산책 일반인 공모전에서 김형미 씨의 '조선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이방인'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호남진흥원은 최근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상 수상작 '조선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이방인'은 조선시대 하멜이 체류했던 강진 전라병영성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역

사의 풍경이 된 과거의 시간을 여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심영의 씨의 '광주의 기억공간과 문화가 뿔뿔했다. 역일에 저항하는 울골은 정신을 표상하는 인물을 기리는 광주의 기념물을 소재로 한 글이다. 우수상은 폐허가 된 일제강점기 권투선수인 서정권의 소천재를 알리고 단당한 복원을 주장한 박희연씨의 '소천재(紹泉齋)'가, 장려상은 자신만의 가치가 숨쉬는 외은 해변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박성근씨의 '그 빛과 그림자'가 각각 선정됐다. 흥영기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는 '호남의 문화·예술·역사·명소' 등의 주제에 맞게 호남지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작품이 많이 접수됐다"며 "앞으로도 공모전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호남의 매력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 우수 작품들은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재형 '똥 싸는 소리' 관객과 만나요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시사회+GV... 29일 광주독립영화관

광주 브랜드 영화를 표방하는 조재형 작 '똥 싸는 소리' 극장 개봉을 기념해 시사회 및 GV(관객과의 대화)가 열린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똥 싸는 소리' 시사회+GV를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사회는 김수진(전 '신1980' 편집장)이 맡을 예정이며 영화 상영 후 씨네 토크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똥 싸는 소리'는 하반기에 마비된 장애인 여성 미숙의 삶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에서 일하던 그녀는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공을 꿈꾸지만 쉽지 않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애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미숙의 꿈은 좌절된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열 살 '수영'과 동거를 시작한다. 수영을 지키고 어리숙한 속매 '태식'과의 사랑도 성공해야 하는데, 뜻밖에도 성공의 관건은 '장 관리(?)'다. 과연 미숙은 장 관리에 성공해 꿈과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조 감독은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후 불편한 몸으로 이번 작품 연출을 맡았다. 영화의 소재 또한 하반기에 마비라는 점에서 감독의 현실 속 고민들이 영화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기대를 모은다. 광주독립영화협회 대표를 역임했으며 전남대 중문과에서 수학적 조재형 감독은 영화 '삼



'똥 싸는 소리' 스틸컷.

포기는 길', '광인-맛의 기억', '세월오월' 등을 선보여 왔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작품은 기획, 창작, 배급은 물론 주요 스태프까지 전부 '광주'에서 맡아서 제작한 지역영화다"며 "광주 영화선에서 활동해 온 조 감독을 가까이에서 만나 지역 영화의 발전을 응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